

교회 목표

산림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2011년 제1차 청지기 훈련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주제 |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딤후 1:15)
일시 | 2011년 2월 25일(금) 저녁 7시
대상 | 모든 성도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장소 | 충현교회 본당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할지라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確證 5:8)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십자가를 잊고 삽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잊은 채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에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갈 3:1).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있어야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이 말씀을 중심으로 2011년 첫 번째 청지기훈련 말씀이 선포됩니다. 2011년 2월 25일, 금요일 밤을 위해 서 창세 전에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입니다(요 1:1). 이번에는 어떤 말씀으로 죄인들의 심령을 깨우실지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골 4:2)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훈련은 주님께 의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전반기 충현장학생 선발

천국일꾼 양성을 위한 충현장학생 228명이 소정의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충현장학생 명단은 본지 7면

성령의 말씀(금요찬양집외)

이스라엘 역사에 참여한 나라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특별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야훼가 다른 열방의 민족들의 역사 속에서도 주관자이심을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이스라엘과 충돌하게 될 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실 때도 있지만, 반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를 움직이셨음을 보여 준다(단 9:7; 신 32:10-12). 대부분의 경우 이들 열방의 이름이 기록될 때는 저들의 역사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열방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주관하셨는가를 보여 준다(겔 26:7,15).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구원과 축복이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주적인 세계의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이지 결코 종교적인 역사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자. 애굽과의 관계에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출 9:13-16). 또한 한 세기 반 동안 온 세계를 장악하던 앗수르를 선지자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사 10:5). 예레미야는 온 세상을 지배하였던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미리 예언하였다(렘 27:5-7). 하박국 역시 이와 같은 계시 때문에 말문이 막혀 버렸다(합 1:5,9-10,12). 다니엘서에 따르면 느브갓네살에게 실제로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단 2:37-38, 4:32-33). 그 당시 온 세계를 놀라게 했던 메대와 바사를 통치할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일어날 것도 예언한다(사 44:28, 45:1-4). 열방 가운데서 흥하고 망하는 제국들의 운명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도록 불러 모으신 관객들이 열방들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애굽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열방은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을 모세는 노래하였다(출 15:14-16).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셨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애굽인들은 과연 이 여호와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어떻게 할지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출 32:11-12; 신 4:6-8, 29:22-23,28).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더럽힐 뿐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려 할 때에도 그것 역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목적을 위함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는 이방 나라들에게도 체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겔 36:21-23).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한 걸음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한 시편을 발견한다(시 47:1-4). 시편에서 노래하는 기이한 행적은 여호와와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 만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서 찬양을 받으며 기뻐할 만한 조건이 된다면 분명히 이방 나라들도 여기에서 무엇인가 유익이 있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다(시 96:1-3). 이스라엘 사람인 시인에게는 여호와의 이름, 구원, 영광과 기이한 행적은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다른 어느 나라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뜻한다. 시인은 진심으로 열방과 온 땅의 거민들을 초대하여 온 세상 사람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행사를 선포하며 또 함께 축하하기를 원했다. 또한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책망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충성할 것을 선포했다. 아멘.

RESURRECTION LIFE

***¹⁾Therefore if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²⁾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

(Colossians 3:1~2)

Church pastors often explain the Christian life by describing earthly blessings. They'll talk about the blessings of happy marriages, good health, loving children, and successful jobs. What is a real Christian life? Do you think you can express the Christian life with earthly things? The Bible tells us that if you believe in Jesus, if you are a born-again Christian, then you wouldn't think about earthly things, but rather think only about the things above. How can preachers talk about how wonderful the Christian life is by talking about earthly things? I'd like to challenge you today by asking you a few questions. Do you believe Jesus is truly your Savior? If yes, then are you living the resurrection life? What is a resurrection life? A resurrection life is a life spent not thinking about earthly things, but rather focuses only on the things above. Let's humbly look at today's Bible verses to strengthen our faith.

A resurrection life looks for vital signs. Today's message begins, "Therefore if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Col. 3:1). What does "raised up" mean? It means new life. New life is a vital sign. You have to die to self in order to be raised up with Christ. This verse describes the new life that is ours when we receive Christ as Lord and accept His sacrifice on our behalf. Colossians 2:12 says, "having been buried with Him in baptism, in which you were also raised up with Him through faith in the working of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Our old nature dies when Christ reigns within us. Are you buried with Christ, or are you still in control of your own life? If you accept Jesus as your Lord then you have new life, "Therefore we have been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so tha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so we too might walk in newness of life. For if we have become united with Him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certainly we shall also be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knowing this,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in order that our body of sin might be done away with, so that we w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Rom. 6:4-6). Do you agree with that? Paul explained it even more clearly,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Gal. 2:20). Another vital sign that the Bible tells us is that we don't live by ourselves any longer when we place our faith in Christ, but we live by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life of Christ. Our actions display Christ's actions rather than our own.

A resurrection life focuses on the things above,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Col. 3:2). If you're seeking and looking constantly for the things above, then your mind will be set upon them. The things above are really the only things of importance. We must constantly and always put God's kingdom first. Matthew 6:19-21 say, "Do no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estroy,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estroys,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or stea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Christians always like to prioritize, like doing their Bible reading first and their regular work next. This is a fallacy! The resurrection life is all about God's work always. The lust of the flesh is striving constantly for the affection of our spiritual heart,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1 Jn. 2:15-17). What's important to you really effects your spiritual life. Jesus said,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will enter"(Mt. 7:21). Is your mind set on earthly things or the things above? Be honest, "Do not lie to one another, since you laid aside the old self with its evil practices"(Col. 3:9). If you are not a new creature, and don't have new life, then your old nature is still in control. Please don't lie when I ask you; do you have resurrection life?

A resurrection life does not follow or conform to this world. I see a lot of churches and a lot of Christians trying to copy other churches and other Christians. People with new life follow Christ alone, "and have put on the new self who is being renewed to a true knowledge according to the image of the One who created him"(Col. 3:10). Christians must continually practice their faith and continually set their minds to the things above. They must put off earthly things and keep growing, renewing, and sanctifying themselves in Christ,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Rom. 12:2). How does one do that? You get rid of your will and live by faith,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Jn. 16:13). If you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and you keep thinking about the things above, the Holy Spirit will explain everything to you. If you start seeking earthly things and keep thinking things on your own, then you won't be able to hear the Holy Spirit's voice. The Holy Spirit wants to help you,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said to you"(Jn. 14:26).

My dear friends, you can live the resurrection life. If you set your mind to the things above and keep looking for the vital signs and keep focused on Christ, then you won't want to follow the ways of this earth. You'll want to follow the Holy Spirit because His voice will enlighten and empower you. Please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so that you can live the resurrection life now and forever. Amen. 

부활의 삶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1~2)



김성환 목사

교회 목사님들은 종종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해서 가르칩니다. 그들은 행복한 결혼, 건강, 사랑스러운 아이들, 성공적인 일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여러분은 이 땅의 것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만약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오직 위의 것들과 함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자아를 죽여야만 합니다. 어떻게 설교자들은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시니까? 무엇이 부활의 삶입니까? 부활의 삶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위의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겸손히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오늘의 성경 본문에 집중합시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부활의 삶에는 생명의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골 3:1)로 시작합니다. “살리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은 생명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자아를 죽여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를 대신한 그의 희생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새 생명을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12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옛 본성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할 때 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4~6).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훨씬 더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생명의 신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때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 자기의 것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행동들을 보여 줍니다.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춘다

부활의 삶은 위의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골 3:2).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위의 것들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생가는 그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들이 진실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19~21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물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이후에 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순위 매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활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일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영적 심령에 영향을 주어 끊임없이 싸우게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가는 이 땅의 것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위의 것들에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골 3:9). 만약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아니라서 새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의 옛 본성이 여전히 여러분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시니까?’ 라고 질문할 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을 따르거나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모방하려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행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 3:10).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며 위의 것들에 자신의 생각을 고쳐야만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땅의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새롭게 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만약 여러분이 위의 것을 계속 찾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땅의 것들을 찾으면 자신의 것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생명의 신호들을 찾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은 이 땅의 방식들을 따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르기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음성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

십자가 복음

위로 (이사야 40:1-5)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 민족들과 교류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수많은 죄를 범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조국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뼈아픈 고통을 당했으며,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던 이웃 나라들의 멸시는 이스라엘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이다(요 3:16).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므로 구원과 더불어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며, 참된 위료가 아닌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축산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니라”(히 13:5-6).

● 그리스도의 재림은 위로를 준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한 것은 세상에서의 안위와 보장된 명제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였다(요 14:1-3).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준다는 것이다(요 14:4-6). 하늘의 나팔이 울리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완전한 형체가 될 것이다(고전 15:51-52).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2).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림은 근심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재림의 징후들(눅 21:25,27)은 참 위료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드러 내서 속량이가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눅 21:28).

많은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료가 하나님에 원하시는 위료가 아니라 세상에 기초한 위로라는 점이다. 예상치 못한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가? 회개하라!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위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만이 성도들에게 참 위로를 준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며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 아멘.

위로하신다. 그 위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인간에게 위료가 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참된 위로를 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사 40:3).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에게 정사(government)를 대신 그리스도는 기묘자, 모사, 찬송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기에 모든 인간에게 참된 위료가 되신다(사 9:6).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민의 의역과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 9:7).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며, 공급하여 주셨다(갈 4:4-5).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사 40:4-5).

●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하나님의 위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

메시아의 죽음 65

깨어 있으라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많이 참조했다.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는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의 집에 자주 모였으며, 마지막 만찬을 비롯한 오순절 성령강림의 순간도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마가는 겐세마네의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였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막 14:37-38).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마 26:40-41). 동일한 사건을 다른 두 개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마가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두고 기록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베드로를 시몬(베드로의 히브릭 이름)이라고 부르실 만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마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였다. 제자들을 데리고 겐세마네로 오신 예수님은, 또 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시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막 14:33-34). 여기서 ‘너희’는 베드로를 지칭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린하지 않겠나

이다”(막 14:29,31). 이것은 분명 베드로의 진심이 담긴 말이겠지만, 베드로는 이내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니”(마 26:40). 베드로의 결심은 얼마 가지 않았으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다. 한편 누나는 베드로의 연한 또 모습을 기술하지 않는데(눅 22:45). 대신에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의 한 편에 있었던 강도의 회개와 구원을 기술하였다(눅 23:40-43). 또한 요한은 20장으로 복음서를 마친 후 부록인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베드로를 기술함으로써, 원래 그가 받은 사명(마 16:17-18)의 회복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겐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 반면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결국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하지 않을 때 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종말론적 의미(마 26:45; 막 14:41-42)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기록과는 “나는 죄인이요, 주님이 주인이시니라”의 회개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참된 회개가 대속한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죄의 유혹에 넘어질 것이다. 완전히 실패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후 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심령에 각인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벧전 5:8-10). 아멘.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00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감사의 기도



저는 작년에 베트남 남부로 선교를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언어습사가 다른 때보다 쉬웠고, 현지에서도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함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간에 언어 차이가 있어 북부에서는 저의 전도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 올린 후에야 전도 끝에 아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를 써서 전도를 하했을 때 끝까지 차분하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한 팀장님의 눈물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한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 주님께서 저에게 "나는 너와 이 베트남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베트남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주님의 세계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그 초췌통통한 눈망울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공인에 의해 호텔에 억류될 뻔도 하였지만 지혜를 주셔서 무사히 끝까지 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전도가 아닌, 주님의 방법과 사랑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찬양을 드리며 운전기사 하우가 지금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지만 다음에는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베트남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게, 그리고 하우의 집과 차량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선교는 어느 때보다 팀원들의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많았고, 서로의 배려가 많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여러 모양의 주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이를 통해 평안함을 얻었고, 다시금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베트남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심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김진선(집사, 7교구)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선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선교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정적인 문제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갇은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주셨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매는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갈급함이 요동쳐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에서 우리 팀은 기쁨과 감사로, 협력과 사랑으로 동서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선교지는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없는 곳이었기에 더욱 기도하며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은 불교문화가 짙 차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 젊은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눈망울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잘 듣고 알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밟으며 우리팀 모두가 손잡고 돌아가며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안선희(집사, 9교구)

망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저는 단기선교를 주님이 저에게 주신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준비를 하면서 웬지 이쯤 해서 남에게 술을 따르고 싶기도 했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해진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선교를 떠날 때는 이번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십전십인지 팀장님도 팀원들에게 행복해하고 자주 묻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다 보니 잠시 방심했는지 팀원들 사이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죄인인 우리에게 화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는 어린 아이도 우리 각자가 깨닫지 못하면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망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송광주(집사, 16교구)

예비해 두신 영혼들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며 정말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달려가서 전해 주어야 할 영혼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들이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었다.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거부하는 영혼을 만나고, 때로는 불쾌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만났지만 대부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부족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느끼며 감사드렸다. 언제 또 다시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올지 모르지만 그동안 만났던 그 많은 눈동자의 영혼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며 열매 맺어 보배와 같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김기원(집사, 5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8일(월) ~ 2월 25일(금)	중동부 2팀	김영은
2월 18일(월) ~ 2월 25일(금)	중동부 3팀	정혜진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9일(화) ~ 2월 16일(수)	24교구 1팀	황순화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31일(월) ~ 2월 8일(화)	대학부 1팀	남용승
1월 31일(월) ~ 2월 8일(화)	대학부 2팀	정민선

십자가의 길

교만한 회개

지난 2월 2일 수요일부예배, 설원회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은 여전히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다. 여느 교회라면 설에 관계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충현의 강단은 설과는 전혀 관계 없이 보이는, 하지만 어찌던 설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메시아의 수난을 예언한 시편 22편을 중심으로 선포된 말씀(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 22:1~8)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순수 복음 그 자체였다.

위임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3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셨다. 1. 버림 받으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시 22:1; 히 4:15, 13:5). 2. 그리스도께서 홀로 고통을 받으셨다(마 27:46, 26:39, 27:45, 28:20; 요 14:18). 3.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은 우리를 구속함이다(시 22:6~7; 빌 2:6~8). 이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목사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수난을 보면서도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 대신에 '교만한 회개'를 하는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며 도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아멘.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가족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5명의 가족이 같은 교회, 같은 예배에 참석한다. 하지만 모두 함께 앉아 있지도, 심지어 함께 출발하지도 않는다. 또 예배 후 각자 속한 부서로 바빠 이동하느라 얼굴을 볼 시간도 거의 없다. 같은 교회에 참석하는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날이 더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엔 같은 마음이 자리 잡는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각자 속한 교회학교가 달라도 모두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우리 가족은 같은 말씀에서 같은 은혜를 받는다.

30년 차이가 나는 아버지가 부르는 찬송이 아들인 나에게 지루하고 따분한 찬송이 되지 않으며, 부모님도 적응 안 되는 빠른 비트에 춤을 곁들인 찬송에 어색해 하질 필요도 없다. 예배 시간에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르는 찬송에는 여기저기 화음까지 섞여 있다. 나도 좀 해 보려다 어색해 다시 소프라노 음으로 돌아와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가곡은 '천부여 외지 없어 서'를 찬송하는 유치부 아이들을 보며 흠뻑 놀라기도 하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에서 한 말씀을 듣고 한 찬송을 부르며 우리 가족이 한 소망을 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리 높여 찬양 드린다. "은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을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같은 소망 품고 한 은혜 받도다."



클·그림/ 배성준(집사, 22교구)

2011년 제1차청지기운편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딤후 1:15)

청지기운편을 읽한 나의 마음은?

- 늘 듣는 말씀과는 다른 청지기운편의 말씀의 매력을 맛보고 싶습니다. 청지기운편은 일상 속에서 벗어나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의 잔치예요. 이재은(교동부)
-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운편에 나와서 주님이 부여하시는 은으로 귀하게 문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운편은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시간입니다. 김예지(대학부)
- 폭 전도를 하고 싶은 지체가 한 명 있는데, 이 날 함께 청지기운편에 참여하여 같이 은혜 받고, 또한 내 스스로는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청지기운편은 말씀으로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장기민(청년1부)
- 항상 지친 마음과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칫 금요일 집회에 근무나 개인일정으로 소홀하기 십상일 때도 있지만, 청지기운편은 그동안 못 받았던 말씀들을 한꺼번에 충전시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인 듯합니다. 김연경(청년1부)
- 항상 사모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반석 위에 서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청지기운편은 회복, 충전,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함은주(집사, 청년2부)

청지기운편을 다섯 글자로 표현에 본다면?

- 전국의잔치 이재은(교동부)
- 은혜의충전 김예지(대학부)
- 주와의시간 유이민(대학부)
- 말씀안의살 장기민(청년1부)
- 다시주께로 김연경(청년1부)
- 주님과동행 이성복(집사, 청년2부)
- 회개와작성 서정민(집사, 19교구)

충현 음악아카데미 / 학생상 명단

충현 음악아카데미



충현 음악아카데미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나팔 소리 울리며 천지 진동할 때 가야 할 천국에서 우리의 역할은 찬양이라고 하지요. 충현 음악아카데미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되어 함께 찬양하며 아모니를 이루고, 5세부터 70세 이르기까지 누구나, 정말 음표도 모르는 초보자부터 전문직으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까지 예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아나나 뜻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찬양의 집사>

연제 개설된 과목과 수강생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연제 총 18개 과목에 220여 명의 수강생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의 집사>

악기를 배우면서 받는 은혜는?

- 예수님이 십자가 노래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학한루, 6세, 바이올린>
- 오보에를 처음 배웠어요. 초등2부 오케스트라에서 친구들과 같이 찬양해서 좋아요. <김가은, 초등2부, 오보에>
- 커서 교회에서 내 몸(작곡)을 이를 수 있게 바이올린과 화성을 배우게 돼서 좋아요. 잘 놀지 않을 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구예은, 중등부, 바이올린&화성학>
- 지금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부족한 것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고 성실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해요. <윤수민, 고등부, 바이올린&화성학>
- 국악대 가려는 목적으로 모른을 처음 시작했어요. 제 성격상 나서는 성격도 아닌데 금관 5중주로 금오장악집에서 연주도 했어요. 제 전공인 피아노도 아카데미에서 배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요. <최민영, 대학부, 모른&피아노>
- 찬양대원으로 오셨던 찬양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는데 비올라로 이진보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께 잘 감사드립니다. 여전이 부족한 모습이나 하나님께 더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찬양처럼 평생 한결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최정은, 집사, 비올라>
- 음악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지금껏 제가 생각했던 좋은 소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화 가운데 제 소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신성희, 집사, 성악>
- 아름다운 음색의 악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케 하신다를 감사합니다. 보다 좋은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늘 애쓰고 기도하는 클라리넷 주자가 되었습니다. <홍기영, 장로, 클라리넷>
- 최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만 가리던 어리석은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충현 음악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순종케 하심으로 스템 바이 스템으로 찬양의 소리를 만들어 가시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알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주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임영희, 권사, 플루트>

개설 과목 및 강사

과목	강사
목소리	김유경, 노은영
관악기	김영선, 박소영
악기	김혜경, 이형민
기타	이슬연
금	조은정
관	노진아, 이영훈, 조성훈, 차복근
악기	이영규
악기	김도형
현악기	김소현, 김재희, 박민, 이수아
현악기	이예수, 장연희, 황윤희
현악기	김혜진
현악기	구자은, 이화영
현악기	김승희, 김원식, 이상주
현악기	김지은, 원지현, 원지혜
현악기	김진경, 한경숙
현악기	반주반
현악기	음악지도원: 최성익
현악기	김진경, 백선옥, 이수진

대상: 유아~성인(연령제한 없음)

문의: 찬양위원회 552-8200(본당 3층 내선 259, 260, 261)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과목	교구	인도자
1605	최병용	성악부	17	홍미화
1606	송제선	사랑부	25	정재선
1607	하태현	악장부	23	홍미화
1608	이태현	악장부	12	김영식
1609	김영영	고등부	19	이교윤
1610	김봉희	악장부	17	김여현
1611	최은미	악장부	2	
1612	신지혜	유아부	2	
1613	신지은	유아부	2	
1614	김소아	유아부	5	김옥선
1615	조경자	악장부	5	이수자
1616	정하옥	악장부	8	
1617	김지은	악장부	8	염경자
1618	조대훈	악장부	8	염경자
1619	조영주	유아부	8	염경자
1620	임서연	악장부	14	이서은
1621	이영미	악장부	23	홍미화
1622	이진현	악장부	14	김민숙
1623	이숙희	청년1부	6	이광현
1624	문지은	악장부	9	최동식
1625	단지원	중등부	12	김영희
1626	노수애		21	고복희
1627	김광식	악장부	17	박종열
1628	유정현	청년1부	17	홍경자
1629	이태현	청년1부	9	
1630	장영민	악장부	19	김수자
1631	김수정	청년1부	22	최종필
1632	최성민	악장부	4	이영희
1633	이준호	악장부	18	김영희
1634	김진경	중등부	19	김희희
1635	윤석민	청년1부	1	
1636	김진영	악장부	9	
1637	한영훈	악장부	9	
1638	김창은	청년1부	6	염경자
1639	박지은	악장부	3	홍미화
1640	최병용	악장부	7	김영희
1641	김성선	청년1부	2	고인순
1642	박덕순	악장부	6	김성희

충현교회의
한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전반기 충현장학생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대학원생 (18명)

강지영 고혁준 김경민 김동현 김소담 김재아 김용성 배찬희 서상희 신현철
심재순 애 니 유원주 윤하정 이영자 이재현 이지은 전혜영

대학생 (116명)

김재현 강진규 고현정 공예원 공진규 구순호 권예지 김 결 김기태 김도홍
김동서 김민정 김보경 김서현 김성해 김연희 김영재 김예린 김예실 김예진
김유용 김윤경 김은혜 김재민 김재현 김준호 김희숙 남지희 남은혜 노하은 문상재
문상희 문영광 박상준 박서경 박소정 박수경 박연경 박요셉 박지은 박진수
박현숙 배성범 변해원 서아영 손연수 송성배 양정모 양한미 예지희 오다현
유재준 유정현 유지민 윤수현 윤영준 윤준호 이영희 이동훈 이소연 이신애
이예주 이은기 이은혜 이은혜C 이은혜D 이은혜E 이은혜F 이은혜G 이은혜H
이평화 이한솔 이혜린 이호용 임성화 임지수 장성훈 장준호 장지혜 장진호
전숙현 전진 전하예 정구한 정나혜 정성국 정성미 정지혜 조상미 조수빈
조슬기 조용진 조진성 주민성 주재량 최단영 최민영 최예진 최용현 최주연

최현호 추수환 한은혜 한태범 홍덕용 황서현

고등학생 (94명)

강성종 강정출 강하은 고민우 광정원 김경연 김길성 김명화 김민정 김신영
김아름 김아록 김우석 김윤환 김은진 김경옥 김준우 김종욱 김준석 김하영
김한나 김한비 김한별 나승원 남경숙 남소리 노예원 돈병태 문수민 민준서
박동규 박지혜 박지훈 박지훈 박재민 박재민 박준우 박수민 배성인 배수희
변다은 변유정 변지연 성문준 손다은 신철민 안태원 양해원 어성진 원나연
원승연 이경아 이교윤 이성민 이예린 이요한 이원진 이재영 이경훈 이준준
이주연 이진솔 임소정 임소택 임인진 임진숙 임충규 임현지 임희진 장준영
전유리 전윤섭 전유아 정다호 정예림 정윤재 정은혜 정성진 정태양 정현종
조경식 조아라 조은주 조하은 주효진 지현정 최예은 최용호 최효진 권예민
한성진 한준식 한희희 홍지혜

충현장학생 선발자 영성운(대학원생·대학생 선발자에 한함)

일시: 2월18일(금), 16~18시 장소: 제1교육관 401호

총 228명

